

「향토그림엽서」발행

- 일본 -

우정성에서는 1991년 2월 1일에 「향토그림엽서」를 처음으로 발행했다.

이 「향토그림엽서」는 향토의 대표적인 풍경 등을 소재로한 그림을 기재한 우편엽서를 통하여 과소(過少)지역을 전국에 소개하는 것으로서 1990년도 우편사업의 중요시책의 하나인 「지역사회에의 공헌」의 일환인 동시에 과소지역활성화 특별조치법의 취지에도 합치하는 것이다.

1991년 2월 1일에 東京版・東北版을 발행하고 기타 지역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발행한다.

향토그림엽서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지방우정국에서 발행한다. ② 과소지역의 자연, 문화, 산업 등 과소지역의 진흥이 도모될 수 있는 내용의 그림 및 당해 과소지역의 소개기사 등을 기재한다. ③ 요액인면은 「우편이미지캐릭터」로 한다.

④ 발행 취지에 따라 조제에 필요한 경비는 이용자, 지방자치체 등에 전가하지 않으며, 판매가격은 41엔으로 한다. ⑤ 판매지역은 당해 지방우정국 관내에 한정하지 않고 과소지역의 소개에 적합한 다른 특정지역을 설정할 수도 있다. ⑥ 우취가 등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東京중앙우체국에서 통신판매 및 창구판매를 한다. ⑦ 제조 코스트를 낮추기 위하여 그림은 표면 아래에, 발행매수는 1건당 50만매 이상으로 한다.

판매에 있어서는 과소지역에의 공헌이라는 관점에서 지방자치체, 상공회, 관광협회 등과 제휴하여 가급적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판매노력을 경주하여 보급, 정착을 도모키로 한다.

(포스트 21, 1991.2)